



강진만에서 꼬막 종묘 키운다

만덕리 해안 10ha에 국내 첫 대규모 육성단지 ... 50kg 살포

18개월 이후 2cm로 크면 채취해 전남 연안에 뿌려

강진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꼬막 인공종묘 육성단지가 조성됐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국내 꼬막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해안 10ha에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단지를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종묘 생산 민간업체인 다산해양종묘는 지난 7월 중순에 생산한 2~4mm 크기의 꼬막 인공종묘 50kg을 최근 이 육성단지에 살포를 마쳤다. 살포한 인공종묘는 이미 60일가량 해양 환경 적응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18개월 뒤면 2cm가량의 어린 꼬막으로 성장한다. 이후 꼬막을 다시 채취, 전남지역 연안 양식어장에 뿌려 2~3년뒤 수확하게 된다. 꼬막 양식은 중간 육성 과정을 거

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살포하면 다른 해적 생물의 표적이 되거나 해양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대부분 폐사하는 등 양식이 까다롭다. 이런 만큼 꼬막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중간 육성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강진만이 최적의 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중간 육성단지에서는 전문 연구팀이 배치돼 주기적으로 꼬막의 성장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해수원 강진센터는 지난해 다산해

양종묘와 함께 자연산 꼬막에서 인공 부화해 거쳐 어린 종묘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전남지역은 연간 5000여t의 꼬막을 생산해 약 3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동안 종묘 생산이 자연산에 의존해 수급이 불안정했다. 광양구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센터장은 "이 중간육성단지는 국내 꼬막 양식산업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에 국립 전복신품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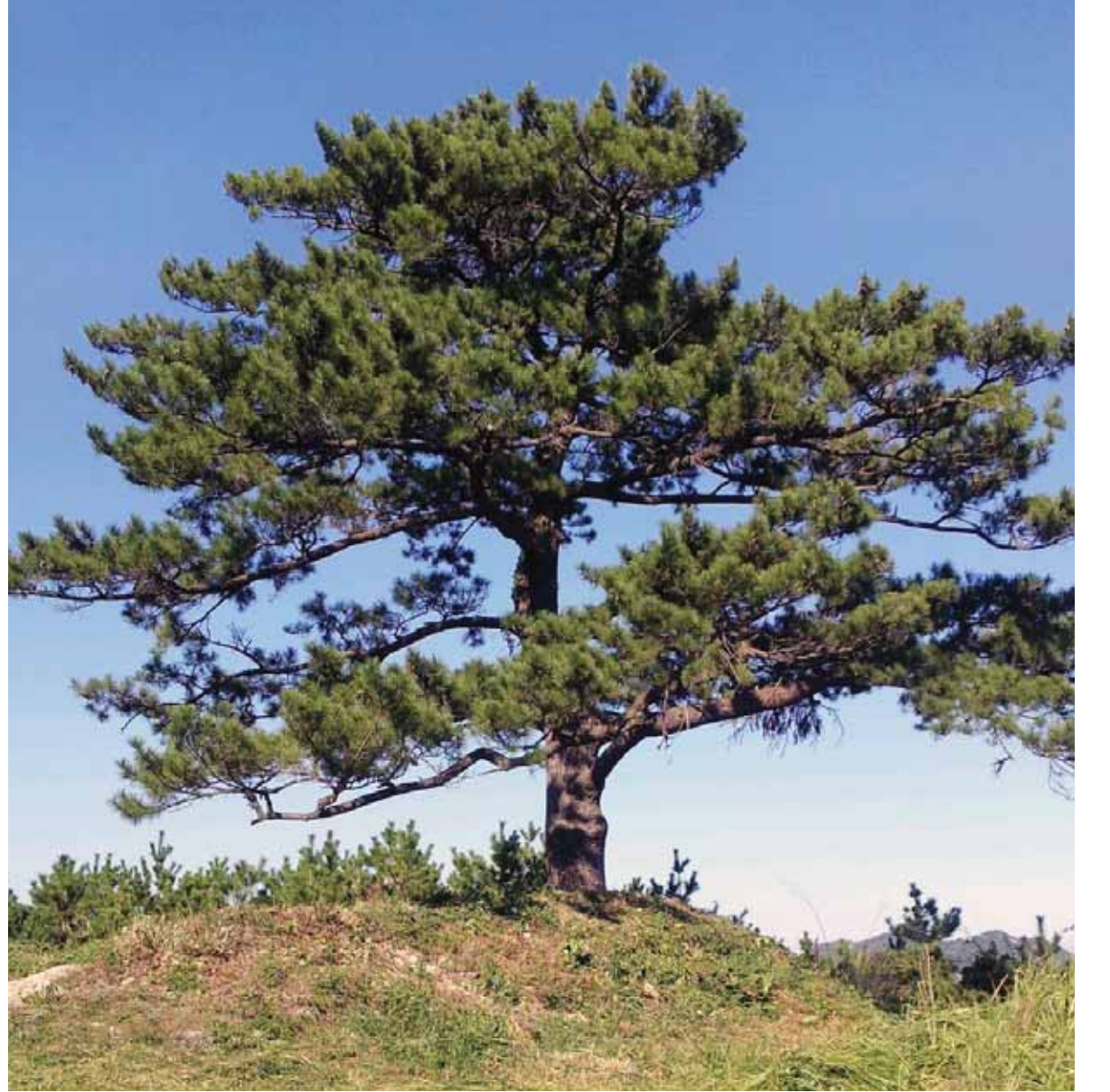
10월 중 후보지 진도·완도·해남 중 1곳 최종 선정 ... 전복 연구 핵심

전복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전복 연구의 핵심이 될 센터가 건립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차 수산물로 자리매김한 전복의 신품종 개발, 육종, 보급 등을 위한 '국립 전복신품종보급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다음달 8일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후보지는 진도 군내, 완도 신지, 해남 화원 2곳 등 모두 4곳이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대학, 전복 산업연합회 등 10명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복센터에는 전복 모패(母貝) 사육동, 산란동, 종묘 생산동,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며 150억원이 투입돼 2016년 준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 등 14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에는 도 해양수산과학원 산하

완도전복센터가 2011년부터 운영중이지만 새 센터가 문을 열면 전복 연구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폐사를 예방하고, 성장이 빠르며, 병해에 강한 전복 신품종 육종과 보급이 주요 과제다. 또 경쟁력이 있는 전복 보급으로 수출 확대와 산업화 촉진, 전남도 산하 전복센터와 선진기술 공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하고 있다. 전복은 지난해 기준 6941t(2514억원)이 생산됐으며 이 중 98%가 전남에서 출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전복 양식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후보지 결정을 거쳐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완도군 보호수 된 수령 200년 생일도 해송(곰솔)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완도군의 71번째 보호수인 이 소나무는 키가 15m다. <완도군 제공>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정흥 16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

‘비단골’ 나주에 펼쳐지는 대만의 ‘천연염색’

10월 2~6일 천연염색박물관 대만 정상급 작가 297점 전시

한국 천연염색의 색과 대만의 색이 나주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만난다. 나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2013 대만 천연염색의 한국 전시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임성훈 나주시장)과 대만 대중시 정부 후루둔문화센터 편직공예관(臺中市立葫蘆墩文化中心)이 공동 주관한 전시회에는 대만의 진경림(陳景林) 작가 등 33명의 대만 정상급 작가의 작품 297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개막은 10월 2일 오후 4시 30분이며 개막식이 끝나고 진경림 작가가 직접 작품 설명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만 지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갖는 해외 첫 천연염색 작품 전시회로 알려졌다. 대만 대중시 정부 후루둔문화센터는 대만에서 유일한 편직공예관(編織工藝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염색 인력양성, 천연염색 도서출판 등 편직공예와 천연염색 발전에 노력을 하



여러가지 염료를 이용한 한국 작품들과는 달리 쪽 염료만으로 표현한 대만의 산수화 작품

고 있는 기관이다. 대만 대중시 후루둔문화센터 소장 경(蕭靜萍)장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만의 천연염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한국과 대만의 천연염색 작가들이 더욱 많이 교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이영규 관장은 "한국의 천연염색이 상업성을 띤 생활용품이 많다면 대만의 천연염색 작품들은 순수예술에 가까운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감상 가치가 기대된다"며 "한국과 대만이 서로의 천연염색 장

현대삼호중공업 ‘행복약속봉사단’ 출범

임직원 등 150여명 참여 지역과 상생발전 도모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약속봉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행복약속봉사단'은 ▲인근 지역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행복팀 ▲농어촌 집수리 등 마을 환경 개선 작업을 펼치는 약속팀 ▲인근 마을 및 유적지 환경정화와 시설 도색을 담당하는 사랑팀 ▲체육활동 및 공연, 경로잔치를 맡게 되는 나눔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행복약속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1년에 두 차례 지역 농어촌 마을을 선정해 집수리, 환경정



지난 28일 출범한 현대삼호중공업 '행복약속봉사단'. 이들은 향후 체계적인 지역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게 된다.

화, 의료, 이 미용, 장수사진 촬영, 세탁, 경로잔치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출범 후 첫 번째 패키지 봉사활동은 11월 9일 영암군 도포면 원목마을에서 지역민과 함께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250여 개의 사내 서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하던 봉사활동을 행복약속봉사단 출범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약속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암=대성수기자 dss@